

“세상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시어의 꿀”



지난 2022년 전일빌딩245에서 열렸던 시화사람시학회인 시목의 송년의 밤 출판기념회 모습.

지역 문학 전문단체 ‘시목’ 10번째 동인지 ‘비밀을 풀었나요’ 발간

2004년 첫 발간 이후 21년만에 10권…초대시·회원 작품 등 엮어

지역에서 발간되는 시 전문지 ‘시와사람’을 사장하는 시인 80여 명이 활동하는 문학 전문단체가 있다. 주인공은 시화사람시학회 ‘시목’.

시목의 지향점은 “한국 시단에 새롭고 참신한 작품들을 발표해 ‘시·다운 시’ 운동을 확산하는데” 있다. 아울러 “참여 시인들에게는 좋은 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서정시의 모습을 보여 주어 참신한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

시목이 최근 10번째 동인지 ‘비밀을 풀었나요’를 펴내 화제다.

동인지를 한두 권 발간하는 건 쉽지만 20년이라는 시간 10권을 선보였다는 것은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창작에 대한 열정, 동인에 대한 관심, 작품 세계 확장 등에 대한 열망 등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시목은 지난 2004년 첫 동인지 ‘소리로 길을 놓다’를 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작품집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산벚꽃이 질 때’(2017), ‘별을 따라 나섰다’(2018), ‘눈물이 이해되는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2019), ‘저녁, 그 따뜻한 혀’(2020), ‘조금만 더 가까워더라면’(2021), ‘작하게 살지 않겠다고 기도할 때’(2022), ‘달에게로 간 타이어’(2023) 등을 선보였다.

강대선 시화사람시학회 수석부회장은 “이 시들을 책 속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가 삶이 되도록 함께 읽고 함께 나눌 것이다”라며 “꽃이 양식이 되듯 시가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시는 고립이 아니라 연대이며 실천이며 삶의 숨결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집은 초대시, 기획특집 ‘바다시’, 회원 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초대시에는 김종의 ‘옹녀(熊女)의 밀’, 강경호의 ‘견고한 죽음’, 정운천의 ‘거미의 집’ 등이 실렸다. ‘바다’에 관한 시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에는



지의 활동 내역이 실려 있다.

아울러 ‘시와사람’ 겸울호(통권 118)도 발간돼 그 의미를 더한다. ‘시목’의 모체나 다른 없는 ‘시와사람’은 내년이면 창간 30년을 맞는다.

이밖에 ‘시와사람’ 신작소집인 조선의 시인의 새 작품 ‘이쪽의 판청인 저쪽’, ‘파로 또 함께하는 모래’ 등도 실려 있다. 김선기 평론가는 ‘존재의 경계에서 소환한 빛의 인아’라는 작품론에서 “조선의 시는 일상의 사소한 사물과 풍경에서 출발하여 존재론적 질문에 이르는 특징을 보인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햇빛연금 나오기까지 15년의 기록

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 ‘햇빛연금 투쟁기’ 폐내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폭염, 산불 등은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 위주의 산업 정책과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서 기인한다.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타 지방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햇빛연금은 하나의 ‘의미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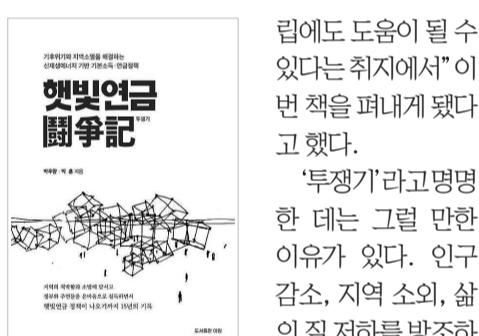
햇빛연금이 나오기까지의 15년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박훈 생태전환지원재단 사무총장이 함께 펴낸 ‘햇빛연금 투쟁기’(도

서출판 아람)는 지역의 적박함과 소멸에 맞서고 정부와 주민들을 온 마음으로 설득하면서 추진해온 ‘햇빛연금’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책은 투쟁의 단면들을 박 전 군수 인터뷰를 바탕으로 박 재단 사무총장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준비 중인 여러 지역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 실행 방식, 최종 목표 설정 면에서 신안군의 햇빛연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박우량 군수가 재임 시절 신안군민들과 함께 햇빛연금 정책과 다양한 지역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른 지역 정책 수



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책을 폐내게 됐다고 했다.

‘투쟁기’라고 명명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구 감소, 지역 소외, 삶의 질 저하를 방조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긴 투쟁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박 사무총장은 “추진 과정에서의 군수와 주민들의 고뇌, 고비 고비마다 애굽음과 갈등, 순간 순간을 이겨낸 빛나는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들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햇빛연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과정마다 어려운 난제들이 나타났고 하나하나 단추를 끼워줘 가는 과정에도 군수, 공무원,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 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채광자 대금 인생 44년

20일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서 독주회

대금의 선율은 긴 시간을 견디운다. 한 음을 내기까지 축적된 연습의 시간과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진 가락의 기억,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호흡이 겹쳐진다.

대금 연주자 채광자가 44년 음악 인생을 담은 제12회 대금독주회를 오는 20일 오후 5시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에서 연다.

이번 독주회 주제는 ‘淸(청)의 아름다움 聽(청)의 그리움’. 채광자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깊이를 중심으로 전통 산조가 지난 본래의 미학을 되짚는 무대다.

공연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즉흥적 흐름의 ‘헛튼가락’으로 문을 연다. 이어 남도 음악 특유의 불임새와 치밀한 구성 미가 살아 있는 ‘서용석류 대금산조’가 이어진다. 곡성 출신의 고(故) 서용석은 대금·해금·아쟁 산조 등을 아우르며 우리 음악의 전통적 흐름을 확장해 온 명인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채광자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제자들이 함께 오른다. 스승과 제자와 한 무대에 가락을 나누며 산조가 지난 공동체적 성격과 전통예술의 계승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예정이다.

채광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배우는 마음으로 대금을 불어왔다”며 “그동안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조가 지난 깊이와 따뜻한 울림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광자는 전남대 국악학과와 조선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남대 국악과, 전남 도립남도대, 광주예술고 등에서 겸임교수 및 강사를 역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배움의 현장에 국악의 향기 전파

국립남도국악원, 교실음악회 운영 단체 다음달 5~19일 모집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장면.

전남의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국악의 즐거움과 소리를 전할 국악단체를 모집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 내년 전남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국악을 소개하는 ‘2026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 학교로 찾아가 공연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국악을 토대로

공연과 해설, 질문 응답, 간단한 체험 활동을

구성된다. 학년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운영을 목표로 하며, 국악의 기본 개념부터 악기 소리·장

단 체험까지 이어지는 실습형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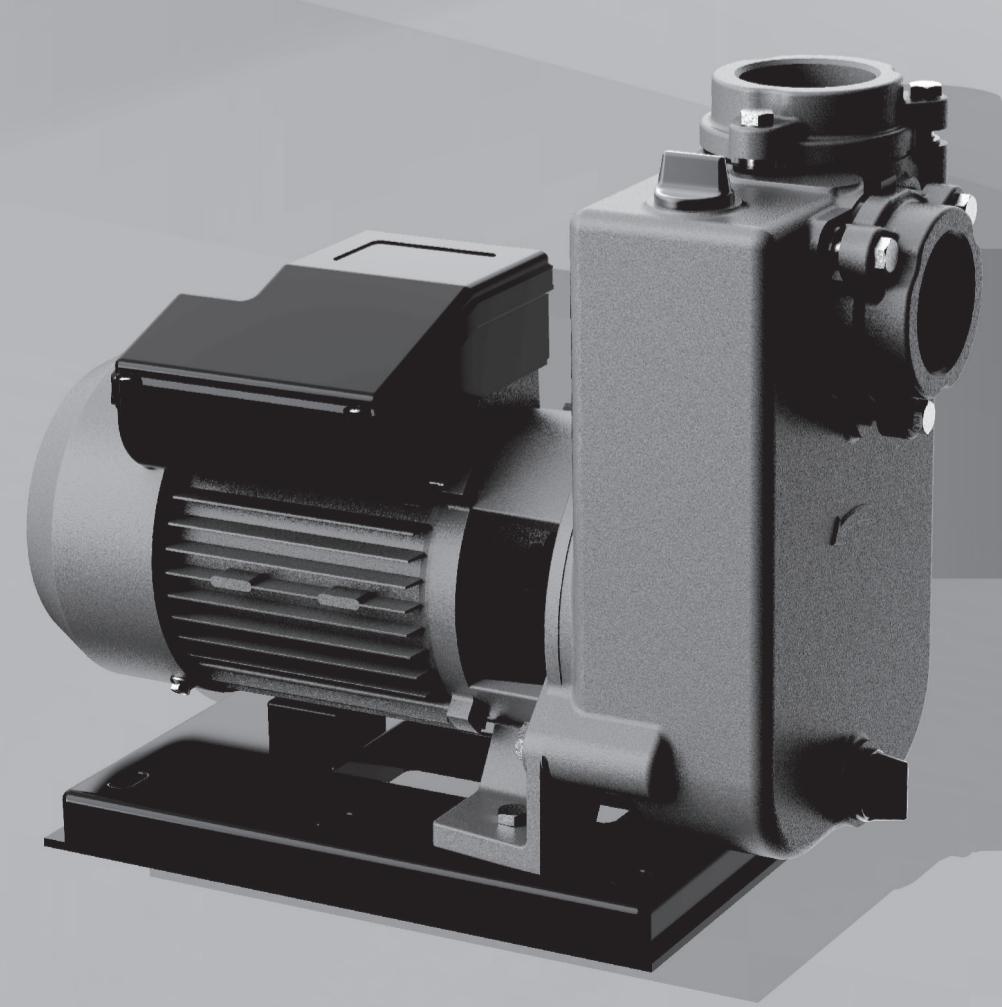
모집 대상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악 또는 한 국무용 단체로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 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단체는 한 학교

를 맡아 한 해 동안 총 20시수 범위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수업 계획안, 단체 증빙 서류, 10분 이내의 실연 영상, 활동 실적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신청서 양식과 세부 내용은 12월 중 국립남도국

악원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wilo